

“AI·제조·안전’ 경쟁력 결합해야” 글로벌 모빌리티 ‘톱3’ 해법 제시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

AX·GX 중심 산업 발전방향 논의
국제표준·친환경 등 핵심이슈 진단
모빌리티 안전 보장 플랫폼 구축 제안

우리나라가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Top 3’를 하기위해선 미국식 인공지능(AI) 주권, 중국식 제조·배치 속도, 유럽식 안전·표준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관련기사 L7·L8> 특히 자동차 등 모빌리티를 잘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안전’과 ‘표준’ 경쟁에서 이기는 나라가 향후 모빌리티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 분석이다.

물류 분야에선 운송 등 모든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은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지난 16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한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서 나왔다.

‘AX(인공지능 전환)×GX(녹색전환)-지속가능한 물류·모빌리티’를 주제로 연 이날 포럼에서 첫 번째 기조강연자로 나선 하성용 중부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공학전공 교수 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은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 한국, 일본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모든 산업은 넘버원(1등)만 살아남는 독과점 구조로 가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모빌리티 분야에서 우리가 이들 나라에 기술이나 서비스가 종속될 수 있는 운명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하 교수는 “모빌리티 혁신의 본질은 이동수단이 아니라 시스템이 바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지난 16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했다. /최규춘 기자 ch9720@

뀌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차를 잘 만드는 국가에서 업데이트가 안전하고 스스로 운행하며 에너지·도시와 연결되는 이동체계를 설계하는 국가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국내 모빌리티 제조사, 플랫폼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 개선을 통한 ‘실증’만으론 경쟁력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하 교수는 “몇 km 실증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몇 명이 매일 이용하고 얼마나 안전하며 얼마나 빠르게 개선하느냐가 중요하다. 상용화를 위해 비포어(before)가 아닌 애프터(after) 단계로 가야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기서 또다른 핵심은 국산화 비중보다 외국의 유용한 자산도 한국형으로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법, 제도 마련 역시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모빌리티 산업에서 ‘안전’은 중요한 키워드다. 배터리가 대표적이다.

하 교수는 “배터리는 주행거리보다 수명, 안전의 총 비용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모빌리티 분야에서 기업들의 반

복투자를 줄이고 한국형 검증자산을 국제표준으로 만들어 수출할 수 있는 ‘국가 Mobility Safety Assurance Platform’ 구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두번째 기조강연자로 나선 박민영 인하대태물류학부·물류전문대학원 교수는 물류분야에 ‘Robotics(Robot+Logistics)’ 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했다.

제품의 입고·출고, 보관, 이송, 피킹, 분배, 포장 등에서 이미 다양한 로봇들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과 물류의 경계가 파괴되고 물류사업의 진입 장벽이 강화되는 등 ‘Big Blur 시대’도 왔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물류산업에서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다. 그러나 제조, 유통, 무역의 종속산업이었던 물류산업이 다양한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영역도 광범위해지고 있다”면서 “AI전환과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안전,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같은 보전 등도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송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DX부문 핵심 경영진 총출동 AI·로보틱스 사업비전 공유

삼성전자 ‘테크 포럼’

노태문 DX부문 대표 등 80여명 참석
“AX 전환기 이끄는 선도기업 도약”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 핵심 경영진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총출동해 인공지능(AI)과 로봇을 앞세운 중장기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스마트폰과 가전 등 개별 기기를 넘어 일상 전반에 AI를 확산해 인공지능 전환(AX)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삼성리서처아메리카(SRA)에서 ‘2026 테크 포럼’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행사에는 노태문 DX부문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이원진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사장, 윤장현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 최원준 모바일경험(MX)사업부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과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리더급 개발자 등 참석자는 80여명에 달했다.

올해 8번째를 맞은 테크 포럼은 삼성전자 경영진이 글로벌 개발자에게 주요 사업 방향과 연구 분야를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행사다. 올해는 AI가 스마트 기기에서 로봇과 일상 공간으로 확장되는 흐름에 맞춰 삼성전자의 기술 개발 방향과 사업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노 사장은 “AI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소비자의 일상이 이뤄지는 모든 공간에서 지능화되고 초개인화된 경험을 구현하고 물리적 제약을 넘어선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에게 최고의 AI 경험을 제공하는 동반자가 됨으로써 AX 전환기를 이끄는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2026 테크 포럼’에서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 대표이사 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제시한 전략은 스마트폰이나 TV 등 개별 제품에 AI 기능을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여러 기기와 서비스를 연결해 이용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AI 경험을 구축한 뒤 이를 로봇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윤 사장도 “미래를 선도하는 삼성전자의 AI”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차세대 AI 기술과 로보틱스의 결합이 가져올 변화를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AI 전략을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는 동시에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DX부문에 챗GPT와 제마나, 클로드 등 외부 생성형 AI를 도입했다. 연구개발부터 생산, 마케팅, 지원 업무까지 활용 범위를 넓혔으며 전 관계사 임원 2300여명을 대상으로 AI 교육도 진행했다.

포럼에 참석한 글로벌 기업의 AI 개발자는 “삼성전자 경영진과 직접 소통하며 제품과 서비스를 넘어 일하는 방식까지 혁신하고자 하는 삼성전자의 AI와 로보틱스 비전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평화도 경제도
파주로!

함께 달리고, 함께 즐기고!
다시 뛰는 파주개성인삼축제

PAJU

제21회 대한민국 최고 6년근 인삼

파주개성 인삼축제

2026.10.17.(토)~10.18.(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77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개성인삼축제추진위원회